

REACH 대비 정보지원 본격화

산자부, 2008년까지 43억7500만원 투자 ... 위해성 정보 구축

산업자원부가 2006년 시행을 앞둔 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월부터 화학제품 환경규제 대응 정보지원체제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REACH는 EU 지역에서 제조·수입되는 한해 1만톤 이상의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에게 화학물질 안정성 보고서(CSR)를 제출토록 하는 등 등록·평가·허가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화학물질이 포함된 완제품까지 규제 대상이 되고 있어 앞으로 화학 관련 수출산업의 장애요인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국 정부의 정보화 체제 구축계획

구분	내용	비고
위해정보	위해성 정보, MSDS 정보, GLP 정보 등	총 5000여개 화학물질에 대해 단계적으로 DB 구축(EU에 수출하는 품목은 약 600개임)
규제정보	등록/표지정보, 법규/정책정보, 국제협약 정보, Article 정보, 국제협력방안 등	
산업정보	수출입 정보, 시장/유통정보, 산업계 영향, 컨소시엄 구축방안 등	
정보활용프로그램	정보제공/공유체계, 정보교육/홍보체계 등 웹기반 수요자 중심 정보시스템 구축	

더욱이 REACH 제도 등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MSDG(물질안전보건자료) 등 물질의 위해성 정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반면, 그동안 화학제품의 정보는 선진국에 의존해 왔고 단편적인 정보가 대부분이어서 이용하는 데에도 상당한 비용과 전문지식이 필요한 실정이다.

각국의 화학물질 정보화 구축 현황

국가명	DB 관리주체	정보내용
미 국	American Chemistry Council(화학제조사단체)	화학물질 규제/위해정보 구축, 매년 각국의 규제 및 동향 세미나 발표
스웨덴	국립화학물질조사단(Kemi)	자국 기업의 생산 화학물질(6만종)에 대해 기능, 성분, 물질흐름도 등 DB화
E U	CEFIC (EU 회원국 화학제조사 단체)	종합적 화학제품 DB인 ECDIN(물리화학적 특성, 유해성 정보 등)을 구축
일 본	일본화학물질안전정보센터(JETOC)	화학제품과 관련된 법규, 규제 화학물질의 독성 등을 DB화 제공

산자부는 국제적 규제에 적절히 대응하고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화학제품 정보화 사업에 대해 산업기술기반 구축사업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5월 중 5000여종의 화학제품에 대한 위해성, 규제, 산업정보 데이터베이스 등 정보화 체계 구축을 전담할 사업자를 선정해 앞으로 5년 동안 43억7500만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조인경 기자>

<화학저널 2004/05/07>